17-18세기 안동(安東) 전주류씨(全州柳氏) 관인(官人)의 작품 속에 나타난 관북지역(關北地域) 형상화와 그 의미

남윤덕*

〈차 례〉

1. 머리말
2. 작품 속에 나타난 관북지역(關北地域) 형상화
3. 작품의 가치와 의의
4. 맺음말

【국문초록】

17-18세기에 활동했던 安東 全州柳氏 출신 문인 乖厓 柳崎와 慵窩 柳升鉉이 남긴 「北土風俗記異」와 「北道風土大略」은 현직 官人으로서 關北地域 일대를 다스리며, 그 곳의 자연환경과 지역민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 등 비교적 다양한 방면에서 나타나는 일화나 특이한 세태를 자신들이 바라본 관점에서 사실감 있게 그려내었다. 일반적으로 관북지역은 咸鏡道를 일컫는다. 류지와 류승현의 작품은 지역성을 내포하며, 유배문학과는 다른 관인문학

*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의 특징을 지닌다. 이들이 묘사하고 있는 작품 속 관북지역의 자연환경과 그 지역 주민의 삶과 애환은 관북지역을 이해하는 좋은 자료가 된다. 이러한 논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생각해 볼 때 오늘날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살아가고 있는 민족의 현실 앞에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져있던 북녘 땅의 일면을 옛 선조들이 남긴 자취를 통해 더듬어 보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주제어: 관북지역(關北地域), 안동(安東) 전주류씨(全州柳氏), 류지(柳榰), 북토풍속기이(北土風俗記異), 류승현(柳升鉉), 북도풍토대략(北道風土大略), 인식, 지역성, 관인문학

1. 머리말

본고는 지역 한문학과 지역 문인을 발굴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17-18세기 安東 全州柳氏 官人의 작품 속에 나타난 關北地域 形象化의 특징과 의의를 살펴보고, 아울러 조선후기 관북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認識과 지역적 의미를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함경도 즉, 관북지역은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다는 차원만이 아니라 지형적으로도 다른 지방과 많은 차이가 난다. 관북지역의 환경과 거기에 적응한 지역민들의 특이한 생활양식은 경물의 변화에 민감한 조선 시대 문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1] 관북지역 사람들은 지역적 특수성의 자각에 따라 강한 동류의식을

1) 김태영, 「海左 丁範祖의 함경도 유배기 漢詩 일고찰」, 한국어문학연구학회, 『한국어문학연구』 54, 2010, p. 331.

형성하고, 그들 나름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을 자부하였다. 지역성에 기반 한 이들의 활동은 개화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관북지역 사회의 발전과정과 그 특수성은 지방문학사로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2] 현재까지 관북지역과 관련된 논문 및 기타 서적들은 대체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활동 전반에 걸쳐 서술한 것과 한문학적으로 몇몇 특정 문인들의 유배문학을 중심으로 다룬 것[3]이 주류를 이룬다. 본고에서는 현직 관리로서 비교적 흔치않은 관북지역에 대한 기록물[4]을 남긴 安東 全州 柳氏 집안의 乖厓 柳樁와 慵窩 柳升鉉이 저술한 「北土風俗記異」와 「北道風土大略」을 통하여 안동지역 출신으로 중앙문인의 삶을 살면서 각각 吉州牧使와 鐘城府使로 재직했을 당시 겪었던 관북지역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류지의 「북토풍속기이」와 류승현의 「북도풍토대략」에 대한 선행연구는 전수연에 의해 그 대략적인 내용 소개가 이뤄진 바 있다.[5]

---

2) 張裕昇, 「17-18세기 咸鏡道 지역의 文集 編纂과 書籍 刊行」, 한국서지학회, 『書誌學報』 27, 2003, p. 46.

3) 함경도 관련 논문으로는 姜錫和, 「朝鮮後期 咸鏡道의 地域發展과 北方領土意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정해득, 「朝鮮後期 咸鏡道 儒林의 形成과 動向」,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高丞嬉, 「조선후기 함경도의 交濟倉 운영과 賑資供給策의 변화」, 梨花女子大學校 史學硏究所, 『梨花史學硏究』 27, 2000. ; _____, 「조선후기 함경도 內地鎭堡의 변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韓國文化』 36, 2005. ; 박명희, 「眉巖 柳希春 시문에 나타난 鍾城 유배기 활동 양상」, 한국고시가문학회, 『고시가연구』 29, 2012. ; 張裕昇, 「조선 후기 서북 지역 문인 집단의 성격 - 평안도와 함경도의 지역 정체성 차이를 중심으로-」, 진단학회, 『진단학보』 101, 2006. ; _____, 「조선 후기 변경 지역 인식의 변모양상」, 우리한문학회, 『한문학보』 20, 2009. ; _____, 「서북 지역 한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고전연구학회, 『한국고전연구』 24, 2011. 등이 있으며, 단행본 저서로는 姜錫和,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경세원, 2000. 등이 있다.

4)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수곡파의 기록정신, 관북견문록」, 『안동무실마을 문헌의 향기로 남다』, 예문서원, 2008, pp. 239-240.

5)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같은 책, pp. 207-240.

이에 본고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접근방식을 달리하여 작품의 문학적 측면에서 관인문학의 인식세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나아가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 안동지역 출신 문인이 바라본 관북지역은 어떠한 모습으로 재탄생되었는지, 또 이러한 논지의 연장선상에서 남북으로 분단된 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민족의 인문학적 인식 함양과 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키는데 본 논고의 의미를 두었다.

2. 작품 속에 나타난 관북지역(關北地域) 형상화

관북지역은 조선왕조를 창건한 太祖 李成桂와 그의 선조들이 활동했던 무대로 흔히 '豊沛之鄕'이라 일컫는다.[6] 17-18세기에 활동했던 안동지역 출신 문인인 류지와 류승현은 중앙에 벼슬하면서 외직으로 관북지역 일대인 吉州와 鐘城지역을 각각 맡아 다스리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당시 직·간접적으로 겪고 느꼈던 관북지역 일대의 자연환경과 지역민들의 생활상을 이야기 소재로 삼아 관북지역을 형상화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관북지역은 유배지로 활용된 사례가 많아 주로 유배객들에 의한 유배문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에 반해 류지의 「북토풍속기이」와 류승현의 「북도풍토대략」은 그들이 현직관료로서 직접 관북지역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며 지은 글이라는 점에서 유배문학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즉, 이것은 현직 실무자의 관인문학으로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배문학의 보편적 특징인 격리, 고립, 소외라는 현실적 단절

6) 姜錫和, 「英·正祖代의 咸鏡道 地域開發과 位相强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奎章閣』 18, 1995, p. 27.

에서 오는 위기의식[7]의 표출에 의해 나타나는 의식세계와는 차이를 보인다.

「북토풍속기이」를 저술한 柳榤(1626-1701)는 字가 重吾, 號는 乖厓이며, 慶尙北道 安東 全州柳氏 水谷派 출신 문인으로 1654년 29세 때 문과에 급제하여 외직인 尙州敎授에 부임하면서부터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 「북토풍속기이」는 그가 1689년 64세 때 綾州牧使를 거쳐 吉州牧使로 재직[8]하면서 겪었던 관북지역에 대하여 보고·듣고·느낀 점 등을 기술한 글이다.

그리고 「북도풍토대략」을 저술한 柳升鉉(1680-1746)은 字가 允卿, 號는 慵窩이며, 류지의 傍系後孫[9]으로 42세 때인 1721년 봄에 太學官에 선발되면서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 류승현은 1728년에 일어난 李麟佐의 亂을 평정하는데 공을 인정받아 1729년 그의 나이 50세 때 鐘城府使를 제수 받아 그 곳을 다스리게 된다.[10] 류승현의 「북도풍토대략」은 그가 당시 관북지역에 위치한 鐘城 땅을 다스리게 되면서부터 그 곳 지역민들의 생활모습을 체험하고 겪은 사실들이나 전해들은 일화를 소재로 삼았다.

1) 관북지역의 邊境的 성격에 대한 보고

관북지역은 험준한 산이 많고,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군사적 이유 때문에 같은 관북지역 내에서도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관북지역은 국방상, 외교상의 이유에서 상인을 비롯한 외부인 및 해당 지역 거주민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열악한 자연 조

---

7) 윤재환, 「조선후기 유배경험의 시적형상화 - 梅山 李夏鎭의 「雲陽錄」을 중심으로 -」, 우리한문학회, 『한문학보』 19, 2008, p. 323.

8) 柳榤, 『乖厓集』卷4, 附錄, 「行狀」 참조.

9) 徐周錫, 『安東文化散策』, (株)梨花文化出版社, 2001, pp. 160-161.

10) 柳升鉉, 『慵窩集』卷4, 附錄, 「行狀」 참조.

건 속에서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하려 했던 이 지역 주민들은 그 활로를 두만강 너머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관북지역민들은 조정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강을 건너갔는데, 이것이 바로 犯越이었다.[11] 이렇듯 관북지역 일대는 넓은 토지에 비해 사람들이 거주하기 힘든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타 지역 보다 많은 貧民을 양산하고 주민이탈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중앙 조정에서는 관북지역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대책을 강구하기에 이른다.

① 會寧 이북은 오랑캐 땅과 접경이며, 두만강 일대는 수심이 그다지 깊지 않았다. 이쪽에는 산과 들이 황량한 반면 저쪽에는 수목이 울창하여 노루와 사슴이 무리를 이루어 奸民이 함부로 사냥하는 일이 흔히 있었다. 민간에서 일용하는 땔나무도 한밤중에 저쪽에서 함부로 베어오는 것을 이루 다 금할 수 없었다. 대개 강변의 금지구역에 한 걸음이라도 경계를 넘으면 곧장 목을 베어 효시하고, 땅을 지킨 관리도 죄를 면치 못하였다. 어떤 때는 함부로 국경을 넘은[犯越] 자가 죽음 속에서 목숨을 구하는 계책을 만들어 邊將과 守令이 시켰다고 말하면, 함부로 국경을 넘은 자는 죽음을 면하고 수령과 변장이 죽음에 이른다고 하니, 더욱 두려울 만하였다.[12]

② 조정에서는 변방을 채우는 대책을 마련하여 북쪽 지역에 백성들을 유입시키고 이주하는 것을 엄금하였다. 안변으로부터 육진에 이르기까지는 15·6일이나 걸리는 여정으로 다른 지름길이나 굽은 길은 없었다. 혹시라도 도망가거나 이주하는 자가 해당 道 안에 있다면 오래지 않아 반드시 그가 있는 곳과 알선한 사람을 알아내어 本邑에서

---

11) 이욱, 「17-18세기 犯越사건을 통해 본 함경도 주민의 경제생활」, 고려사학회, 『韓國史學報』 20, 2005, p. 140.

12) 柳升鉉, 『慵窩集』 卷3, 雜著, 「北道風土大略」. "會寧以北, 界於胡地, 豆江一帶, 深不過揭厲. 此邊則山童野赭, 彼邊則樹木鬱密, 獐鹿成羣, 奸民犯獵, 比比有之. 至於民間日用柴草, 昏夜犯斫於彼, 不可勝禁. 蓋江邊之禁, 一步犯境, 便卽梟示, 守土之官, 亦不免罪. 或有犯越者, 爲死中求生之計, 稱以邊將守令之所使云, 則犯者免死, 守令邊將抵死云, 尤可怕也."

부터 일일이 공문을 보내 쇄환하는데, 소재한 읍에서 만약 기한에 맞춰 돌려보내지 못하면, 반드시 논의하여 양쪽 관영에 보고하고 가두어 억류하였다. 그러므로 각 읍에서 쇄환하는 공무가 매우 번거로우니, 다른 도에는 없던 일이었다.[13]

③ 조정에서는 北民을 단속하기 위해 지극하지 않은 바가 없었다. 兩班·品官에서부터 將校·軍士·官吏·妓生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雇工[머슴]을 공급해주었다. 혹 流民·商賈·匠人 등이 그 지역에 들어와 수삼 개월이 지나면 백방으로 꾀어내서 그 姓名을 알아내고선 곧장 男丁五家案에 이름을 올렸다. 대개 北路에서는 자주 犯越하는 변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가안에 등록된 사람의 수효를 조사하였는데, 3월부터 9월까지 매번 5일에 1번씩 살펴 公文이 없이는 임의로 출입할 수도 없었다. 만약 오가안에 이름이 오르면, 비록 다른 道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돌아갈 방도가 없었으며, 인하여 받아 낸 고공에 관한 立案[문건]을 관청에 보고해야 했다. 그 후 사환이 공물을 징수하기를 한결같이 노비처럼 하였다. 비록 本土 사람이라 하더라도 혹 身役을 피할 궁리를 하여 帳籍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가 남에게 발각되면 붙잡혀와 받아 낸 고공에 관한 입안을 관청에 보고해야 했다. 비록 그 사람이 군역을 견딘다하더라도 관청으로부터 정해진 保伍를 이탈할 수 없었으니, 매우 고질적인 폐단이었다.[14]

---

13) 柳樅, 『乖厓集』 卷3, 雜著, 「北土風俗記異」. "朝家, 爲實邊之策, 北地入民, 切禁移徙. 自安邊至六鎭, 相距, 十五六日程, 無他傍蹊曲逕. 或有逃移者, 若在該道之內, 則不久, 必知其在處及許接人, 自本邑, 一一移文刷還, 所在邑, 若不趁期還送, 必論報兩營, 囚繫捉還. 故各邑刷還, 公事甚煩, 他道所無."

14) 柳樅, 『乖厓集』 卷3, 雜著, 「北土風俗記異」. "朝家, 爲北民完護, 無所不至. 自兩班品官, 至將校軍士官吏妓生等, 皆給雇工. 或有流民商賈匠人等, 入其地過數三月, 則百般誘, 問知其姓名, 卽付名於男丁五家案. 蓋北路, 往往有犯越之變, 故五家案點考, 自三月至九月, 每五日一考, 無公文不得任意出入. 若付名於五家案, 雖他道之人, 無路歸去, 因以告官受出雇工立案. 其後使喚徵貢, 一如奴婢. 雖本土之人, 或爲謀避身役, 不爲付名於帳籍而見知於人, 則告官推捉, 受出雇工立案. 雖其人堪爲軍士, 而自官不得奪定保伍, 甚爲痼弊."

류승현이 기록한 ①의 글에 보이는 '犯越'은 주로 국경과 인접했던 관북지역에 나타났던 현상이다.

조선후기 관북지역의 '犯越 사건'은 남쪽 지방으로의 진출이 봉쇄된 관북민들이 활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범월'의 유형을 살펴보면 '採蔘', '佃獵', '伐木', '拾橡', '貿易' 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은 오랫동안 계속된 북방 주민들의 생활의 한 방편이었다.[15] 척박한 지역 환경에서 강 건너 비옥한 환경을 마주하는 '범월'의 유혹은 관북지역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범월'은 분명히 국경을 넘는 이적행위와 같은 重罪였으므로 조정에서는 '범월'하다가 적발된 지역민뿐만 아니라 그것을 묵인해줬거나 奸民의 무고에 의해 고발된 邊將과 守令까지도 사형에 처하였다. 평소 남쪽지방에서 생활해왔던 류승현에게 있어 '범월'에 대한 인식은 그저 생소하게 느껴졌던 일이었겠지만, 그가 직접 관북지역에 부임하면서 알게 된 '범월'과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충분히 두려울만한 것이었다.

②는 류지의 글로 ①의 글에서와 같이 힘든 관북지역의 생활환경과 '범월'에 대한 처벌로 인한 관북민들의 거주지 이탈이 비일비재하다는 실상과 쇄환업무를 통해 이를 방지하고 유입을 권장하는 일을 수행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는 담당 관원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위 글에서 "다른 道에는 없는 일이었다"는 구절은 류지가 자신의 지역성에 입각하여 관북의 지역특수성과 주민이탈의 심각성을 타 지역에 빗대어 부각시킨 것이다. 결과적으로 ③에서 류지는 조정에서 '범월'이나 '주민이탈'을 막기 위해 일정지역의 다섯 가구가 서로를 감시하는 '男丁五家案'을 시행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족쇄처럼 지역민들을 속박하고, '雇工'이라는 노동 인부로 전락시키거나 군역의 역할까지 분담하게 하는 등 그 실효성보다 폐

15) 이욱, 앞의 논문, p. 142.

해가 더욱 심하다는 사실에 憂慮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글들은 관북지역의 열악한 생활상과 그로 인한 '범월'과 주민이탈 등에 대하여 중앙 조정에서 내린 처우와 단속책의 일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당시 힘들었던 관북지역민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한편, 류승현이 담당했던 鐘城은 두만강에 붙어있는 국토의 북단 지역으로, 조선 초기부터 첨예한 국경 문제가 발생했던 곳이다.[16] 조선후기로 넘어오면서 그 양상은 淸과의 정치·외교적 분쟁으로 이어진다. 류승현은 현직관원으로 외교적 실무를 담당하면서 差胡 즉, 청나라 差官을 상대하게 된다.

> ① 差胡는 으레 무뢰하고 탐욕스러운 경우가 많았지만 성품은 교활하지 않았고, 또 사람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 물건을 내 놓으라 할 때 만약 제 뜻에 차지 않으면 비록 온갖 생트집을 다잡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받아가려 할 즈음에는 아예 꼼꼼히 살펴보는 일이 없었다. 비록 고운 베와 거친 베가 섞이거나 긴 것과 짧은 것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따지거나 물리는 일이 없었다. 다만 그 베의 숫자만 헤아려서 받았기 때문에 일을 담당한 무리들이 속임수를 부렸다. 어떤 때는 고운 베 사이에 거친 베를 채워 넣거나 어떤 때는 1필을 나누어 2필로 만들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한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풍속이 도리어 오랑캐의 풍속보다 부끄러운 점이 있다.[17]

> ② 오랑캐가 말을 먹이는 방법이다. 만약 기약한 날에 앞서 잘 먹여두었다면 비록 여러 날을 먹지 않아도 굶주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16) 이승수, 「박제가의 北關 風俗誌 愁州客詞」, 한국언어문화학회, 『한국언어문화』 29, 2006, p. 344.

17) 柳升鉉, 『慵窩集』 卷3, 雜著, 「北道風土大略」. "差胡例多無賴貪饕, 而性不巧詐, 又信人不疑. 方其徵索之時, 若不滿意, 則雖生梗百端, 而及其回心受去之際, 元無詳細察視之事. 雖布之精粗相混, 長短不齊, 無計較點退之事. 只數其疋頭而受之, 故任掌輩行詐欺慢. 或於細布間充入粗者, 或中分一疋作爲二疋而不之覺察云. 此則我國之俗, 反有媿於胡俗也."

> 差胡 등은 매번 돌아가는 때에 임하여 반드시 기약한 3일 이전에는 말을 매어놓고 먹이를 주지 않았다. 대개 돌아가는 길에 강을 넘은 후 여정에서 6·7백리 동안은 사람이 사는 땅이 없고, 그 여정은 매번 겨울이 깊어진 후에나 있어 들판에는 이미 풀도 없고 또 머물 곳도 없었기 때문에 미리 그 말들을 굶겨 꿋꿋이 참게 해야 이동할 수 있었다. 差胡들은 돌아가는 기한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그 매어둔 말에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을 보고 某日이 마땅히 돌아가는 날임을 알았다.[18]

①, ②는 差胡라 일컫는 청나라 차관의 성품과 말먹이는 습성을 통하여 관북지역에서 일어나는 조선과 청나라 외교관계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①은 류승현이 담당 관리로서 청나라에 바칠 조공 물목을 내는데 무뢰배 같은 청나라 차관이 조공 물목에 불만을 가지고 온갖 꼬투리를 다 잡다가도 일단, 결정이 난 후에는 믿고 의심을 하지 않아 조공 물목을 속이거나 바꿔치기 해도 살피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청나라 차관의 어리석음을 탓하기보다 그 신의를 긍정한다. 반면 지시한 일을 맡은 우리 쪽 관리들이 교활하게 조공 물목을 속이는 행위를 부정하며 청나라의 풍속보다 못한 관리들의 작태를 부끄럽게 여기기까지 한다. 이것은 비록 오랑캐인 청나라와 관계된 일이지만 공사의 구별, 원칙과 신의를 중시여기는 류승현의 현직관인으로서의 삶과 그의 청렴한 성품을 엿 볼 수 있다. ②는 청나라 차관의 독특한 말 먹이는 방식을 통해 차관이 돌아가는 시점과 그 여정에 대한 자연 지리적 환경, 그리고 그 습속을 간접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

18) 柳升鉉, 『慵窩集』 卷3, 雜著, 「北道風土大略」. "胡人飼馬之法. 若前期善飼, 則雖累日不飼不飢. 故差胡等每於臨歸時, 必前期三日繫縶而不秣. 蓋以歸路越江之後, 行無人地六七百里, 其行每在冬深後, 野旣無草, 又無站處, 故預飢其馬, 使之堅忍而能行也. 差胡等未嘗言歸期, 而我國之人見其繫馬不給芻豆, 則知某日當離歸也."

淸나라 差官의 폐단은 실로 本府의 큰 근심이었다. 매년 會寧에서 開市를 하였고, 또 慶源에 가서 개시를 하기도 하였다. 회령과 경원 兩府에서 개시하는 支供은 사슴·노루·닭·돼지 등의 동물이었다. 각 邑에서는 으레 정해진 방식이 있어 개시할 장소에 내놓을 것을 미리 준비하였는데, 소·소금·보습·가마 솥 및 기타 철제품이었다. 또한 정해진 수량이 있어 운송할 것을 미리 준비하여 시장을 열 때 교역할 밑천으로 삼았다. 差胡 등은 고의로 생트집을 잡아 개시할 때에 물리치고 순순히 수용하질 않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다시 준비하거나 어떤 때는 뇌물을 더 주거나 하여 봉납의 폐단이 없기만을 기약하였으니, 백성들의 폐해가 이루다 말할 수 없었다. 교역할 즈음에 미쳐서는 감히 값에 따라 홍정하지 않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맡겼으니, 말이 교역이지 봉납하는 것은 반값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다. 이들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모두 민간에서 내도록 책임 지웠다. 경원에서 개시할 때에 이르면 鐘城을 경유하였기 때문에 가서 여러 날을 머무니, 供億의 비용은 이미 지극히 크고 많았으며, 징발하여 贈給하는 물건도 헤아릴 수 없었다. 座首·兵房 등을 불러 들여 증급하는 수량을 기록하게 하였는데 座首 등이 감당할 수 없다고 변명하면 협박하여 꾸짖어 곤욕을 당하지 않을 때가 없었고, 심지어는 머리채를 잡거나 채찍으로 때려 욕심을 채우고 난 뒤에나 그만두었으니, 이른바 증급은 애당초 정해진 수량이 없었다. 그러므로 오랑캐 무리의 탐욕스런 풍습은 전에 비해 점점 더 심하였다. 그 징발하는 것이 해마다 증가하니 실로 끝이 없는 큰 폐단이었다. 이전부터 差需廳을 설치하여 物力을 거둬 모아 이치에 맞게 가져다 썼지만 물력에는 한계가 있었고 징발하는 것은 셀 수도 없었으니, 다 쓴 후에는 다시 민간에서 거두어들였다. 백성들의 곤궁과 피폐함이 실로 적잖은 걱정이었지만, 사안이 異國에 매여 있어 어찌할 수 없으니, 진실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19]

---

19) 柳升鉉, 『慵窩集』 卷3, 雜著, 「北道風土大略」. "淸差之弊, 實爲本府鉅患. 每年開市于會寧, 又往慶源而開市. 會慶兩府開市支供, 鹿獐雞猪等物. 各邑例有定式, 預備進呈于開市所, 牛隻鹽石犁口釜子及其他鐵物. 亦有定數, 預備運送, 以爲開市時交易之資. 差胡等故爲生梗, 臨時退卻不肯受, 故或改備, 或添給賂物, 期於無弊捧納, 其爲民弊不可勝言. 及其交易之際, 不敢從直雕蹬, 任其所爲, 雖曰交易, 所捧不過半價而已. 此等酬應, 皆責出於民間. 至於慶源開市之時, 則路由於鐘城, 故其往也留連累日, 供億之費, 已極浩多, 而

위의 글은 류승현이 실무자로서 직접 체험한 조선과 청나라 사이 開市貿易의 실상과 그 폐단을 묘사하고 있다.

會寧과 慶源에서 시행된 開市는 청나라와의 정기교역을 말한다. 회령개시는 1628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행해졌으며, 경원개시는 1645년에 시작되었고 한해 걸러 실시되었다.[20][21] 위 글에서는 회령과 경원에서 이루어진 청나라 차관의 봉납에 대한 폐단과 관리로서 어찌할 수 없는 고충, 그리고 백성들이 받고 있는 고달픈 현실에 대하여 류승현의 울분과 소회를 토로하고 있다. 봉납할 물품의 양을 많이 요구한다던지, 뒷돈을 줘야 그나마 쉬이 넘어간다던지, 교역이라는 미명아래 물품의 값을 턱없이 낮춰 헐값에 내준다던지, 요구에 불응하는 관원의 머리채를 잡거나 채찍으로 매질하는 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고통은 고스란히 백성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류승현은 이러한 청나라와의 어쩔 수 없는 상명하복의 관계를 개탄하는 가운데 현직관인으로서 이 같은 폐단을 바로잡을 수 없는 자신을 자책하고 있다.

이상은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 관북지역의 변경적 성격에 대한 현직관원의 실무적 의식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범월 사건'과 '쇄환업무', 그리고 '남정오가안'이라는 제도적 장치, 청나라 차관의 습속과 성격, 회령과 경원 두 곳에서 이루어진 조선과 청나라간의 개시무역은 관북의 지역적 특수성이 빚어낸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

徵索贈給之物無數. 呼入座首兵房等, 使之書贈給之數, 座首等以不能堪當爲辭, 則恐嚇困辱, 無所不至, 甚至毆捽鞭扑, 期於充欲而後已, 所謂贈給則元無定數. 故胡人輩貪饕之風, 比前漸甚. 其所徵索, 歲歲增加, 實爲無窮之大弊. 自前設差需廳, 收聚物力, 料理取用, 而物力有限, 徵求無算, 及其盡用之後, 則復自民間收聚. 民之困弊, 實非細慮, 而事係異國, 無可奈何, 良可慨也."

20) 『영조실록』 권93, 「35년(1759 기묘/청 乾隆 24년) 1월 10일(임진) 1번째 기사」 참조.

21) 姜錫和, 앞의 논문, 1995, p. 33.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이러한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는 류지와 류승현의 글은 당시 관북지역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관북민의 경제적(經濟的) 상황과 생활

관북지역은 광활한 토지에 비해 농지로 개간하여 쓸만한 땅이 부족하였다. 관북지역은 정치, 사회적으로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고, 지형이나 기후조건이 기본적으로 열악하였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가 매우 컸다. 이 지역의 문제는 변방지역의 민심과 관계된 것이었으므로 중앙 정부에서도 대책마련에 부심하였으나 농업경제의 기반이 약하여 재해 피해를 도내에서 구제할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였다.[22] 류지와 류승현은 늘 자신들에게 각인되어 있던 남쪽지방에 대한 지역성에 근거하여 관북지역의 농업경제와 토지 및 진휼제도의 실상을 형상화하였다.

> ① 田土가 광활하지만, 농사 일이 매우 적어서 빨리 밭 갈고 힘써 거두는 데도 남쪽지방의 백성들만 못하였다. 그러나 오곡이 무성하고 또한 곡식을 다시 지을 수 있으니, 그 토지의 비옥함은 알만 하였다. 그렇지만 量田의 등수로 旱田이던 水田이던 간에 모두 6등급으로 기준을 삼으니, 賦斂의 박함이 또한 다른 道에는 없는 것이었다. 北土는 몹시 추워 北靑 이북은 보리를 가을에 파종할 수 없고, 밀 또한 봄에 파종하니, 누룩을 만들어도 南土에서 가을에 파종하여 만든 누룩만 못했으며, 빚은 술 맛도 매우 없었다. 그러므로 토속민은 淸酒·濁酒를 만들지 않고 오직 露酒를 사용하였지만, 그래도 南方의 술맛보다는 못하였다.[23]

---

22) 高丞嬉, 앞의 논문, 2000, p. 237.

23) 柳榰,『乖厓集』卷3, 雜著,「北土風俗記異」. "田土廣闊, 而其農功甚疎, 疾耕力穡, 不如南土之民. 然五穀茂盛, 亦復穎粟, 其土之肥沃可知. 而量田等

② 吉州의 還穀은 4만 여석인데, 찰기장·메밀·봄보리·귀리가 가장 많았고, 벼·수수·콩은 아주 적었다. 백성들의 戶口를 계산하고, 大戶·中戶·小戶·殘戶로 분류하여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거두어들이는 어려움이 다른 道보다 배나 되었다.24)

③ 北道의 貧民은 각 읍에서 장부를 만들어 위에 보고하면 조정에서부터 綿絮를 나누어 보내주는데, 한 사람당 綿布는 반필·絮는 8·9兩을 공급하였다. 각 고을의 빈민은 으레 정해진 수가 있어 돌아가며 뽑아 보고하게 했는데, 鐘城에서 뽑아 보고한 백성이 또한 100인에 가까웠다. 이것으로 미루어보면 그 비용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으니, 조정에서 北民을 대우하는 방법이 지극하다 이를 만하다.25)

①, ②, ③은 모두 류지와 류승현 자신들이 살았던 남쪽지방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지역성을 근거로 관북의 지역적 특수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①에서는 관북지역이 남쪽지방에 비해 광활한 토지를 가지고는 있지만, 경작할 능력과 인구가 부족한 현실, 그리고 소출 또한 남쪽지방에 못 미치는 사실들을 언급하였다. 토지제도에서도 田土의 등수를 살펴 旱田·水田에 모두 6등급으로 기준을 삼아 세금을 거두는 것을 다른 道에 비해 가장 적게 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②, ③은 류지와 류승현 자신이 다스렸던 길주와 종성에서 시행된 환곡제도와 빈민구제의 실상에 대한 언급을 통하여 관영의 재정 상태가 썩 좋지 않은 것과 타도에 비해 제대로 시행

數, 旱田水田, 皆以六等爲準, 賦斂之薄, 亦他道所無. 北土甚寒, 北靑以北, 牟不得秋種, 眞麥亦春種, 作麴不如南土之秋種, 釀酒味甚薄. 故土人不爲淸濁酒, 惟用露酒, 而終不如南方之酒味."

24) 柳樏, 『乖厓集』 卷3, 雜著, 「北土風俗記異」. "吉州還穀, 四萬餘石, 而稷·木麥·春牟·瞿麥, 最多, 稻·粱·菽, 絶小. 計民戶口, 分大·中·小·殘戶, 分給. 然收捧之難, 倍於他道."

25) 柳升鉉, 『慵窩集』 卷3, 雜著, 「北道風土大略」. "北道貧民, 各邑成冊上報, 自朝家頒送綿絮, 人給綿布半疋·絮八九兩. 各邑貧民, 例有定數, 輪回抄報, 鐘城所抄報, 亦且近百. 以此推之, 其費不貲, 朝家所以待北民者可謂至矣."

되기 어려웠던 점, 그리고 관북지역에 대한 중앙 조정의 관심과 處遇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 土田에서는 대체로 물을 대고 농사를 짓는 방법이 南方에서처럼 수고롭거나 고생스럽지 않았다. 소와 말의 분뇨는 대부분 수레에 실어 시내 골짜기 사이에 내다버렸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비록 밭에 분뇨를 쓰지 않더라도 곡식이 풍성하지 않을 근심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추수하는 즈음에는 일찍이 마을로 실어오지 않았다. 베어 놓은 것은 묶어두고, 쌓아 놓은 것은 밭 사이에 두었다. 31束을 쌓는데, 한 사람이 짊어지고 갈 정도였고, 덮어두거나 지키지 않았다. 또 시냇가 지나는 길에 어떤 이가 찧은 곡식을 물레방아 간에 놓아두고도 낮이 지나고 밤이 지나도록 간수하지 않으니, 또한 도둑맞을 근심이 없어서였다. 대개 듣기로, 이 마을에 도적을 다스리는 법이 매우 엄정하여, 한번이라도 도적이란 이름을 얻으면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감히 도적질하지 못한다하니, 또한 백성들의 풍속이 순박함에 가까움을 볼 수 있다.[26]

류승현은 자신의 지역성에 입각하여 남쪽지방과는 다른 관북지역만의 농작법과 농민의 생활상에 대하여 알려준다. 특히, 관북지역에서 물대고, 농사짓는 일을 남도 지방에서처럼 고달프게 하지 않는다는 것과 남쪽지방에서는 농사지을 때 귀한 거름이 되는 소와 말의 분료가 여기 관북지역에서는 거름으로 쓰이지 않고 그냥 내다버리는 경우, 도적질에 대한 법이 엄격하여 자신들이 수확한 곡식이나 물건을 밖에 아무데나 놓아두어도 도난당할 일이 없는 것 등 남쪽지방의 농작법과 생활풍습과는 사뭇 다른 이 곳 지역민

---

26) 柳升鉉, 『慵窩集』 卷3, 雜著, 「北道風土大略」. "土田, 大抵, 饒沃而農作之法, 不似南方之勤苦. 牛馬之糞, 率多輦棄於溪壑之間, 問其由, 則曰: '雖不糞田, 禾穀不患不茂云.' 秋收之際, 未嘗輸入村閭. 刈置作束, 積置田間. 積三十一束, 稱爲一荷持, 不覆不守. 又歷路溪澗之傍, 或置水碓舂粟, 而度日過夜, 不爲看守, 亦無盜竊之患. 蓋聞此土治盜之法甚嚴, 一得盜名, 不齒人類, 故民不敢爲盜, 而亦可見民俗之近淳也."

들의 모습에서 관북지역에 대한 지역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중 하나는 관북지역과의 비교 대상으로 '南土', '他道', '南方' 등의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류지와 류승현 자신들에게 내재된 지역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술방식은 관북의 지역적 특수성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준다. 류지와 류승현의 작품 속에는 이 같은 요소들이 곳곳에 보인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내재된 지역성은 다른 지역을 인식하거나 평가할 때 중요한 척도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류지와 류승현의 글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3) 관북지역 유생들의 학문 활동과 특징

조선전기 이래로 유림의 형성이 타 지역에 비해 늦었던 관북지역은 17세기말 이후 중앙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유림이 형성되기 시작한다.[27] 관북지역은 학문의 보급이 늦은 지역으로서 顯宗代 初까지도 鄕儒의 학문적 성장이 미숙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17세기 후반 관북지역 일부 학자들이 尤庵 宋時烈(1607-1689)의 門下에서 수학하고 성리학을 연구하게 되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관북지역에 중앙학계 士族의 학문이 본격적으로 전해지게 된다.[28] 그러한 일례로 학문적 발전을 꾀하기 위해 17세기 후반에 세워진 鐘山書院을 들 수 있다.

> 鐘山書院은 鐘城都護府의 涪溪面에 있고, 一蠹 鄭汝昌(1450-1504)이 主壁이며, 服齋 奇遵(1492-1521)·眉庵 柳希春(1513-1577)·桐溪 鄭蘊(1569-1641)·守夢 鄭曄(1563-1625)·淸陰 金尙憲(1570-1652) 등의 諸賢

27) 정해득, 「朝鮮後期 關北 儒林의 形成과 動向」, 경기사학회, 『京畿史學』 2, 1998, p. 100.

28) 정해득, 같은 논문, 1998, p. 75.

들을 배향하였고, 近世에 이름 있는 公卿들을 또한 추가로 많이 배향하였다고 한다.[29]

위의 글은 류승현이 관북지역 강학공간의 하나인 종산서원에 대한 위치소개와 그 배향인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종산서원은 조선 현종 때인 1666년에 건립되었으며, 1686년 숙종 12년에 賜額을 받은 서원이다.

류승현이 언급한 인물들 이외에도 鄭弘翼(1571-1626)·趙錫胤(1605-1654)·兪棨(1607-1664)·閔鼎重(1628-1692)·南九萬(1629-1711) 등[30]의 諸賢들이 추가로 배향될 정도로 종산서원을 중심으로 한 관북지역일대 문인들은 자신들의 척박한 삶의 터전 속에서 학문적 발전을 이룩하며, 관북지역에 대한 조선사회의 인식체계를 변화 시켜나가는 활로를 열고자 노려하였다. 그러나 관북지역의 학문 활동과 강학공간의 실상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다.

① 吉州儒生案에는 유생들의 수가 수백 인에 이르지만, 과거 응시자 명단에 오른 자는 겨우 10여인이었고, 그 가운데 製述시험에서 답안지를 완성한 자가 4·5인이었다. 그러나 매번 式年監試에서 闕榜한 적이 없었고 더러 장원을 한 자도 있었으니, 北土의 문사가 적었음을 이것을 근거로 알 수 있다.[31]

② 鄕校의 廟宇·堂·齋 및 樓는 모두 넓고 훤하며 정제되어 있고, 엄숙하고 위엄 있는 것이 볼만 하였다. 사환노비 또한 5·60구였는데, 향교의 여노비들은 아리따운 이들이 많아 유생들이 齋에 거할 때 여노

29) 柳升鉉, 『慵窩集』 卷3, 雜著, 「北道風土大略」. "鐘山書院在府之涪溪面, 鄭一蠹齋主院也, 配以奇服齋·柳眉庵· 鄭桐溪·鄭守夢·金淸陰諸賢, 而近世名公卿, 亦多追配云."

30) 柳義養 지음, 崔康賢 옮김, 『北關路程錄』, 一志社, 1976, p. 70. 각주 180) 참조.

31) 柳樁, 『乖厓集』 卷3, 雜著, 「北土風俗記異」. "吉州儒生案, 其數幾至數百, 而赴擧都目, 僅十餘人, 其中, 能製述成篇者, 四五人. 然每式年監試, 未嘗闕榜, 居魁者, 或有之, 北土之少文士, 據此可知."

비로 하여금 수청을 들게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 줄도 모르고 태연해하였다. 만약 알아듣도록 타일러도 따르지 않으면 회초리로 때려 學宮의 형벌을 행하여 엄정히 징벌하고 뜯어 고쳐야 마땅하지만, 習俗이 이미 오래되어 갑자기 고치기는 어려울 듯하니, 개탄스럽다.[32]

일반적으로 관북지역 문인들의 학문적 성취는 일찍부터 문화적 혜택을 받아온 타 지역에 비견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현실적으로 중앙문인과의 교류가 어렵고, 극히 한정된 서적만이 필사를 통해 유통되는 관북지역의 문화적 배경에서 이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33] ①, ②에서 바라본 류지의 눈에서는 관북지역의 유생의 학문 활동과 잘 정비된 강학 공간인 향교의 활용상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①의 글에서처럼 "北土의 문사가 적다"는 표현의 이면에는 南方의 문사들의 수와 비교할 때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류지의 견해는 대부분 자신이 살던 곳의 지역성을 반영하여 평가한 것이다. 특히 ②의 글에서는 향교 같이 넓고 좋은 강학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에는 전념하지 않고, 여노비에게 수청이나 들게 하는 관북지역 유생들의 못된 습속에 대한 류지의 비판적인 견해를 엿볼 수 있는데, 이 또한 관북지역 유생의 학문 활동이 자신이 생활했던 지역과는 달리 원활하지 못한 모습을 지역성에 기반 하여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① 習俗은 오로지 武藝를 숭상하는데, 南關의 文敎는 北關에 비하면 몇 갑절이나 된다. 남관에서는 咸興이 가장 많으며, 북관에서는 鐘

32) 柳樅, 『乖厓集』 卷3, 雜著, 「北土風俗記異」. "鄕校廟宇・堂・齋及樓, 皆宏敞整齊, 儼然可觀. 使喚奴婢, 亦五六十口, 而校婢輩多姣艶, 儒生等, 居齋時, 使婢守廳, 恬不知恥. 若曉喩不從, 則榎楚, 爲學宮之刑, 當嚴懲痛革, 然習俗已久, 恐難猝改, 可歎."

33) 張裕昇, 앞의 논문, 2006, p. 404.

城과 鏡城이 가장 많고 吉州가 그 다음이며, 다른 각 읍에서는 혹 과거 응시생이 1·2인뿐이었다. 대개 종성과 경성 두 고을에는 으레 文臣을 差出하여 보냈기 때문에 권장하는 효험이 꽤나 있었다고 한다.34)

② 磨天嶺 이북으로부터 儒生이 會試를 보러 가면, 그 소속관청에서부터 刷馬 및 노자와 양식을 공급받았으며, 京師에 이르렀다가 돌아갈 때 또한 兵曹로부터 公文을 만들어 刷馬를 교체해 주고, 양식도 지급하여 보냈다. 대개 지세가 워낙 멀어서, 만약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진실로 나라의 빛나는 정치를 볼 수 없으니, 조정에서 北人을 대우함에 그 넉넉하고 후함이 이와 같았다.35)

③ 鐘城에는 養士廳이 있는데, 監官을 두어 布穀을 주관하게 하였다. 매양 봄·가을에 紙墨을 사서 백일장을 열었다. 또 六鎭의 양사청이 종성에 있어 혹여 임시로 거처하며 백일장을 열면 미리 육진의 각 고을에 공문을 돌려 그들로 하여금 士子를 일으켜 보내게 하였다고 한다.36)

관북지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대체로 武藝를 숭상하고 풍속이 鄙陋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으며, 이에 따라 유림의 존재 역시 微微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37) 류지와 류승현이 묘사한 ①, ②, ③은 글공부보다는 무예를 숭상하는 관북지역민들의 습속에 기인하여 학문을 익혀 문과에 응시하는 유생들이 남도지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과 열악한 학문 활동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

34) 柳升鉉,『慵窩集』 卷3, 雜著,「北道風土大略」. "習俗則專尙武藝, 而南關之文敎, 比北關倍蓰. 南則咸興爲最, 北則鐘鏡爲最, 吉州次之, 他各邑或有擧子一二而已. 蓋鐘鏡兩邑, 例以文臣差出, 故頗有勸奬之效云."

35) 柳榰,『乖厓集』 卷3, 雜著,「北土風俗記異」. "自磨嶺以北, 儒生之赴會試, 自其所居官, 給刷馬及資糧, 以達京師, 其還, 亦自兵曹成公文, 替給刷馬, 供饋以送. 蓋地勢踔遠, 若不然, 固無以觀國之光, 朝家之待北人, 其優厚如此."

36) 柳升鉉,『慵窩集』 卷3, 雜著,「北道風土大略」. "鐘城有養士廳, 置監官主張布穀. 每春秋買紙墨設白場. 又有六鎭養士廳在鐘城, 或居接設白, 則預爲移文於六鎭各邑, 使之起送士子云."

37) 정해득, 앞의 논문, 1998, p. 74.

①에서는 종성과 경성에 조정에서 직접 선발한 문신까지 보내 관북지역민의 문교를 중흥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아울러 ②에서처럼 관북유생들에 대해 나라에서 오히려 과거시험을 칠 수 있게 말을 빌려주고, 노자와 양식을 제공해 줄 정도로 남쪽지방에는 없던 중앙 조정의 극진한 대우까지 엿볼 수 있다. ③에서는 養士廳을 설치하여 유생들을 양성하며, 백일장을 열어 유생들의 학문발전을 독려하는 내용이 그려지고 있다. 국경과 인접한 지역이다 보니 文보다는 武에 치중하는 것은 현실적 대응자세라 할 수 있지만, 나라에서는 관북지역의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각종 교육활동을 통하여 文과 武의 고른 발전을 꾀하려 했던 점을 살필 수 있다.

관북지역의 학문적 성장은 제도적 뒷받침보다는 지방관으로 파견된 중앙 문인들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지한 바가 컸다. 실제로 16-18세기 무렵 北評事를 역임한 관료들은 대부분 조선 문단을 대표하는 일류 문인들이었다. 학문과 명망을 갖춘 역대 북평사들이 관북지역의 문화 발전에 미친 영향은 지대한 것이었다. 북평사는 鏡城 소재의 評事廳에 상주하였는데, 북평사에게 수학하려는 관북지역 유생들이 이곳으로 모여 들었기 때문에 경성[38]과 양사청이 세워진 종성은 관북지역 학문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사실은 류지와 류승현의 글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3. 작품의 가치와 의의

관북지역의 실상을 상세히 다룬 저술이 등장한 시기는 대략 17-18세기 무렵부터이다.[39] 특히, 조선시대 관북지역과 관련된 산

38) 張裕昇, 앞의 논문, 2006, p. 401.
39) 張裕昇, 앞의 논문, 2009, p. 196.

문 작품은 그 수가 많지 않을뿐더러 대부분 유배문학이 주류를 이룬다.[40] 洪良浩(1724-1802)는 『北塞記略』을 저술하여 관북지역의 經略문제를 논의했으며, 또한 관북지역의 생활과 풍토에 주목해서 『朔方風謠』와 『北塞雜謠』를 엮었다. 丁範祖(1723-1801)는 49세 때인 1771년에 甲山에 유배되었다가 사면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경위를 『北征錄』에 적었으며, 中人인 趙秀三(1762-1849)은 1822년 관북을 여행하고 그 견문을 『北行百絶』로 기록하였다. 朴齊家(1750-1805)는 순조 원년에 尹可基(1747-1801)·尹行恁(1762-1801)의 옥사에 연좌되어 鐘城에 유배가 있으면서 그 지역에 대해 느낀 점들을 「愁州客詞」 79首로 담아내기도 하였다.[41]

관북지역에 대한 작품들은 크게 시·산문·가사·악부 등으로 나눠진다. 특히 관북지역 一帶는 대대로 유배지로 활용되어 온 사례가 많아 관북지역 관련 문학 대부분은 유배 온 관인들의 문학작품이 주류를 이룬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관북지역을 직접 다스렸던 실무자들의 작품은 그 가운데서도 희귀한 편이며, 특히 산문작품은 더욱 그렇다. 관북지역의 현직관인이었던 류지와 류승현의 「북토풍속기이」와 「북도풍토대략」은 자신들의 지역성을 토대로 실무자의 입장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직접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을 글로 형상화한 관인문학이라는 점에서 유배객들의 소외, 격리, 울분, 그리움 등을 위주로 한 문학세계와는 다른 작품적 가치를 지닌다.

17-18세기를 살았던 류지와 류승현의 관북지역에 대한 기록은

---

40) 관북지역 관련 작가와 작품은 대부분 유배문학이 주류를 이루는데, 趙憲의 『北謫日記』, 鄭忠信이 지은 『白沙先生北遷日錄』, 金時讓의 『涪溪記聞』, 李安訥의 『北塞錄』, 宋疇錫의 가사 <北關曲>, 李玄逸의 『愁州管窺錄』, 李栽의 『蒼狗客日』, 柳義養의 『北關路程錄』, 徐命膺의 『遊白頭山記』, 金鑢의 『思牖樂府』와 『坎窞日記』, 金鎭衡의 가사 <北遷歌> 등이 그것이다.(최강현, 「유배지로서의 관북 문화를 살핌」, 명지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전통문화연구』 2, 1984, p. 14.)

41) 심경호, 「관서·관북 지역의 인문지리학적 의의와 문학」, 한국고전연구학회, 『한국고전연구』 24, 2011, pp. 10-12.

관북지역의 문화를 파악하는데 기여한다. 류지와 류승현의 작품은 무엇보다 자신들이 살았던 곳에서 내재된 지역성을 근거로 기술된 것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관북지역의 실상을 더욱 흥미롭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청나라와 국경을 인접했던 관북지역민들의 '범월사건'이나 주민이탈로 인한 관원들의 '쇄환업무', 그리고 집단 감시체제인 '남정오가안'의 족쇄, '경제적 상황과 구휼제도에 따른 지역민의 생활상', '지역유생들의 학문 활동' 등은 자신들의 지역성에 기반하여 기술한 것이었기에 관북지역만의 특수성을 잘 살려 보여줄 수 있었다. 또한 청나라와의 외교적인 사안에서 벌어지는 '차관들의 횡포나 습속', '회령과 경원에서 열렸던 개시무역의 실태'는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교류양상과 문제점을 깊이 있게 짚어내어 당시 인접국과의 정치·외교적 일면을 파악하는데 요긴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점은 류지와 류승현의 작품이 갖는 중요한 서술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전주류씨 수곡파의 지역문학사적 기록문학에서 관북지역 관련 저술의 출발은 류지의 「북토풍속기이」로 시작되며, 그의 아들 蒙泉 柳慶輝(1652-1708)의 「北行錄」이 그 뒤를 잇는다. 이후 류지의 「북토풍속기이」를 잇는 저술이 바로 류승현의 「북도풍토대략」이다. 전주류씨 수곡파의 북방지역 관련 글들은 훗날 定齋 柳致明(1777-1861)의 「關西遊錄」으로 이어지게 된다.[42] 류치명의 「관서유록」은 그의 나이 63세 때인 1839년 12월에 楚山府使[43]로 부임하여 압록강 주변의 풍물을 기록한 글이다.[44] 이와 같이 전주류씨 집안 대대로의 북방지역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저술은 지역 특수성을 연구하는데 있어 좋은 단서를 준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지역문학 연구에서는 대부분 서울을 중심으

42)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앞의 책, pp. 213-216.
43) 柳致明,『定齋先生文集_附錄』卷3,「行狀」참조.
44)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앞의 책, pp. 213-216.

로 한 문인들이 남긴 문학작품을 다루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이것은 결국 서울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 대한 고유한 문화나 풍습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양상을 낳기에 이른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이제 지역문학의 중요성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지역문학 연구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문학 작품에서 지역적 특색을 추출하는 것이다. 지역문학 연구자는 우선 문학 작품을 産生한 지역사회의 제반적인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자연 지리적 특성은 물론, 지역 사회의 권력 구조 및 지역 문인의 지역성과 같은 사회 문화적 토대에 이르는 폭넓은 이해가 요구된다.[45] 이와 같은 관점에서 놓고 보았을 때 관북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사회적 조건 등은 그 곳 지역민들만의 생활환경과 풍속을 형성하는데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는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로 우리만의 국가적·지역적 특색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 남과 북으로 분단된 채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민족이 통일 후에나 가 볼 수 있는 북녘 산하와 그 동포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는 일 또한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아울러 현재와 맞물려 과거 선인들이 생각했던 북녘 지역을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그 지역적 특수성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이해할 필요성이 오늘을 사는 우리 민족에게는 다시금 요구되는 과제일 것이다. 이에 류지와 류승현의 작품은 관북지역 일대의 자연환경과 백성들의 생활문제에 직면하여 그 지역의 특수성을 현대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그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 될 수 있다. 그들은 현직관인의 입장에서 지형·기후·식생 등 여러 방면에 걸친 관북지역 즉 함경도의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사회·정치·경제·문화 등의 제반 현상을 개성적으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이들의 작품이 갖는 의의라 하겠다.

---

45) 張裕昇, 앞의 논문, 2011, p. 74.

결론하자면 류지와 류승현의 작품과 같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저술은 지역학 연구의 필요성을 대변해주며, 지역성을 규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들의 작품은 관북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계승한 지역문학사적 성격의 문학저술로 관북지역 일대를 묘사한 기록물로서의 가치와 관인문학의 작품적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 17-18세기 지역학과 한문학사를 연구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사료된다.

4. 맺음말

이상으로 류지의 「북토풍속기이」와 류승현의 「북도풍토대략」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관북지역의 자연환경 및 지역민들의 생활상을 살펴보았다. 17-18세기에 주로 활동했던 안동 전주류씨 출신문인인 류지와 류승현은 작품을 통하여 현직관인으로서 직접 관북지역 일대를 다스리며 느꼈던 지역민들의 생활환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자신들의 지역성에 근거하여 사실감 있게 재탄생시켰다. 류지와 류승현의 글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과거 관북지역을 이해하는 좋은 지침서 역할을 한다. 류지와 류승현은 조선시대를 살았던 인물들로 이들이 묘사하고 있는 작품 속 관북지역은 유배문학과는 또 다른 관인문학을 낳았다. 이러한 논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를 생각해 볼 때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살아가고 있는 민족의 현실 앞에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져있던 북녘 땅의 일면을 옛 선조들이 남긴 자취를 통해 더듬어 보는 일 또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앞으로 본고에서는 관북지역 관련 자료들을 발굴하고, 관북지역에 대한 학파별, 지역별, 시대별 특징을 밝혀 그 지평을 넓히는 작업을 차후 과제로 남기며, 가까운 미래에 통일될 시대를 맞아 북녘 땅에 대한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이해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柳 樁, 『乖厓集』, 退溪學資料叢書 38, 退溪學硏究所, 1999.
柳升鉉, 『慵窩集』, 退溪學資料叢書 49~50, 退溪學硏究所, 2000.
柳致明, 『定齋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 297~298, 民族文化推進會, 2002.

2. 논문

姜錫和, 「英·正祖代의 咸鏡道 地域開發과 位相强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章閣』 18, 1995, pp. 27-67.
_____, 「朝鮮後期 咸鏡道의 地域發展과 北方領土意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高丞嬉, 「조선후기 함경도의 交濟倉 운영과 賑資供給策의 변화」, 梨花女子大學校 史學硏究所, 『梨花史學硏究』 27, 2000, pp. 237-260.
_____, 「조선후기 함경도 內地鎭堡의 변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韓國文化』 36, 2005, pp. 339-374.
김태영, 「海左 丁範祖의 함경도 유배기 漢詩 일고찰」, 한국어문학연구학회, 『한국어문학연구』 54, 2010, pp. 323-352.
박명희, 「眉巖 柳希春 시문에 나타난 鍾城 유배기 활동 양상」, 한국고시가문학회, 『고시가연구』 29, 2012, pp. 115-142.
심경호, 「관서·관북 지역의 인문지리학적 의의와 문학」, 한국고전연구학회, 『한국고전연구』 24, 2011, pp. 5-30.
윤재환, 「조선후기 유배경험의 시적형상화 - 梅山 李夏鎭의 「雲陽錄」을 중심으로 -」, 우리한문학회, 『한문학보』 19, 2008, pp. 321-349.

이승수,「박제가의 北關 風俗誌 愁州客詞」, 한국언어문화학회,『한국언어문화』29, 2006, pp. 333-363 .
이 욱,「17-18세기 犯越사건을 통해 본 함경도 주민의 경제생활」, 고려사학회,『韓國史學報』20, 2005, pp. 139-164.
張裕昇,「17-18세기 咸鏡道 지역의 文集 編纂과 書籍 刊行」, 한국서지학회,『書誌學報』27, 2003, pp. 45-77.
_____,「조선후기 서북지역 문인집단의 성격 - 평안도와 함경도의 지역 정체성 차이를 중심으로 -」, 진단학회,『진단학보』101, 2006, pp. 391-425.
_____,「조선후기 변경지역 인식의 변모양상」, 우리한문학회,『한문학보』20, 2009, pp. 173-198.
_____,「서북 지역 한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고전연구학회,『한국고전연구』24, 2011, pp. 73-100.
정해득,「朝鮮後期 咸鏡道 儒林의 形成과 動向」,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_____,「朝鮮後期 關北 儒林의 形成과 動向」, 경기사학회,『京畿史學』2, 1998, pp. 73-103.
최강현,「유배지로서의 관북 문화를 살핌」, 명지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전통문화연구』2, 1984, pp. 7-34.

3. 단행본

姜錫和,『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경세원, 2000.
柳義養 지음, 崔康賢 옮김,『北關路程錄』, 一志社, 1976.
徐周錫,『安東文化散策』, (株)梨花文化出版社, 2001.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안동 무실 마을-문헌의 향기로 남다』, 예문서원, 2008.

Description on Gwanbuk Area Reflected in the Literati's (Andong-Jeonju Ryu Clan) Works in the Late Choseon Dynasty (17th to 18th Century) and that Significance

Nam, Yoon-Deok

Both 'Goeae' Ryu, Gee and 'Yongwa' Ryu, Seung-Hyun from "Andong-Jeonju Ryu clan" worked on their careers as incumbent civil servants in various directions the late choseon dynasty (17th to 18th century). while governing the Gwanbuk area, they wrote two books titled as 「Buk-To-Poong-Sok-Gi-Iee」 and 「Buk-Do-Poong-To-Dae-Liak」. from relatively various angles with their own point of view, Both books featured realistically special aspects of society with anecdotes on the natural environment all around the Gwanbuk area and the local people's society, politics, economy, culture, studies and so on. Generally, Gwanbuk area refers to Ham-kyung-do.

These works imply regionality and feature the character of bureaucrat's literature different from exile literature. These literary works are precious documents to deeply understand not only the natural environment in the Gwanbuk area but also local people's lives with joys and sorrows depicted in their books.

Considering our current time in line with these points, to retrace one side of the northern part (that was forgotten in our memory) through our ancestors' footsteps under the sad situation of the long-divided peninsula will be enough significant.

Key words: Gwanbuk area, Andong-Jeonju Ryu clan, Ryu Gee, Buk-To-Poong-Sok-Gi-Iee, Ryu, Seung-Hyun, Buk-Do-Poong-To-Dae-Liak, Recogintion, Regionality, Bureaucrat's literature

남윤덕
소속: 부산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박사수료
주소: 경북 안동시 옹상동 전거리 7길 77 연립주택 201호
전화번호: 010-3432-8369
전자우편: skadbsejr95@hanmail.net

이 논문은 2014년 2월 27일 투고하여
2014년 4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4월 16일 게재 확정함